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 Matthew 11:28-30 ]

###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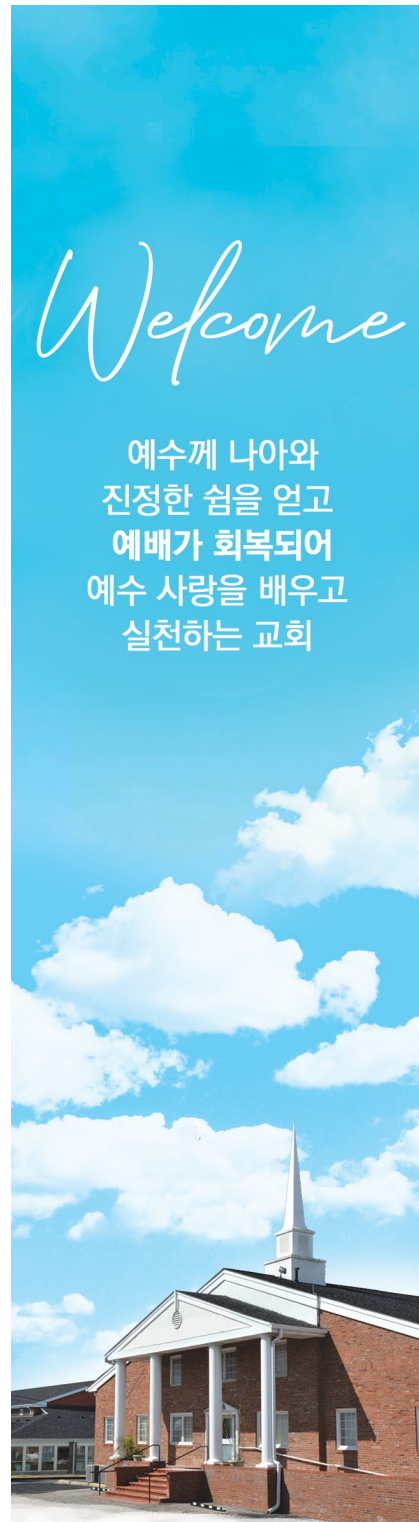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8.27.2023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 (2)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72번 이사야 Isaiah 58
참회의 기도	시편 Psalm 51:17
찬송	찬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같이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예레미야 Jeremiah 31:15-22 OT p 1101
말씀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 (2) / 김성직 목사
Sermon	Missions of the Called: O Virgin Daughter Israel (2)
성찬식	김성직 목사
*결단의 찬양	주 은혜임을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피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장점을 끼워 넣어서, 또 약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은 나는 당연히' 사죄 받았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감'일 뿐입니다.

4. 이 사죄 조항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했듯이 사도신경의 각 조항을 살펴볼 때는 언제나 숲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죄 고백은 사도신경 제3부 성령님에 관한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사죄를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월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 역사 내내 왜 이 순서대로 고백을 했을까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끝없이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사함 받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그 순서를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서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간다고.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일뿐입니다.

5. 사죄의 감격을 가르쳐 주는 성경 구절

사죄의 감격을 전해주는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만 몇 구절 뽑아보았습니다. 굳이 구약에서만 찾은 이유는 구약은 신약보다

저급하며 '화내시는 하나님'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입니다.

자, 구약이 사죄의 감격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8-13)"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7:18-19)"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1-2. 이 구절은 로마서 4:7-8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 교회 없이 사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28)

계속해서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이 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9과>  
사죄를 믿습니다  
에베소서 1:7

2.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에베소서 1:7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말은 ‘종의 신분에서 풀려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는 말은 곧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풀려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습니다.

그 죄 사함을 그분,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 덕분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찬송가 544장 2절 가사처럼 “힘써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1:5)”

피와 풀어줌, 에베소서의 말씀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2)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했나?” 이 복음송 가사처럼 왜 하나님은 죄 사함 받는 길을 마련하시려 예수님이 피 흘리시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7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답은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분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흘러넘쳐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3. 사죄의 현재성

에베소서 1:7을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죄 받았습니. 그리고 죄 사함을 지금도 받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그리스어)으로는 현재형입니다. 늘 죄 사함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언젠가는 죄 사함을 받겠지요’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성서교독

교독문 72번 이사야 Isaiah 58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같이]**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2), 렘31:15-22

### <본문 속으로>

1.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무엇 때문에 위로 받기를 거절하나요? (15절)
2. 그토록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요? (17절)
3. 하나님의 연단을 처음 받게 되는 우리는 어떤 송아지 같은 모습인가요? (18절)
4. 처녀 이스라엘은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만들어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인가요? (21절)

## SATURDAY

###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 SUNDAY

###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이십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고관절 재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백영희 집사님 딸 엘리슨: 두 번의 턱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신웅 전도사님: 뇌에 Hematoma 수술후 회복 중이십니다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의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MONDAY

###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 THURSDAY

###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TUESDAY

###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 WEDNESDAY

###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 FRIDAY

###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 <생활 속으로>

1. 이정표를 세우고 주의 길로 돌아가는 소명자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 붙잡고, ‘소망의 이정표’를 세우고 남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산 소망’이시요, ‘영원한 위로’이시요, ‘좋은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정표 삼아 살고 있는지, 행여 다른 소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2. 이정표를 세우고 주의 길로 돌아가는 소명자는,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라는 말씀 대로, ‘회개의 이정표’를 세우고 남기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회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되시는 삶으로 업 엔 다운 속에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3. 이정표를 세우고 주의 길로 돌아가는 소명자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찢사오니” 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의 이정표’를 세우고 남기며 살아갑니다. 거울은 매일 보는데, GPS는 매일 켜고 운전하는데, 성경 말씀은 제대로 거울 삼아 늘 비춰보고 있는지, 말씀을 GPS 삼아 인생길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 소 망 소 식

## 예배를 섬기는 이들

8/27		9/3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 안내	최미진 집사	교회 안내	조재경 집사
번역/통역	김예람,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이화니,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소망학교	애찬 담당	도미니카구역
교회 청소	칠레 구역 (8월)	교회 청소	모로코 구역 (9월)

## 향기로운 예물 8/20/2023

주일	\$442	건축	\$0	주일학교/유스	\$5
십일조	\$5,068.75	첫열매	\$0		
감사	\$610				
선교	\$0				
구역선교	\$540			헌금총액	\$6,665.75

## 헌금 외 수입금

입금총액 \$6,665.75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 1. AWANA

어린이들을 위한 AWANA 프로그램과 수요예배가 지난 수요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 성찬식

오늘은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 교회행사

8월 27일 (주)  
성찬식

9월 3일 (주)  
정기당회

##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시카 결혼: 이창진 (성혜선 권사) 장로님 장녀 Jessica 양이 어제 (26일) 멕시코에서 결혼예식을 올렸습니다. 새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구역** 모로코 구역(오귀록 장로 임희남 권사)과 김영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이화님 자매님을 위해서